

소리의 고장 보성군,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개최

외국인부 신설·명창부 시상금 5천만 원 확대... 판소리 판을 넓힌다!

보성군은 대한민국 대표 전통예술 축제인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를 오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보성군이 주최하고 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며, 외국인부 신설과 명창부 시상금 상향 등 경연 체계 개편과 국제 참여 확대를 통해 글로벌 축제로 확장했다.

외국인부는 올해 처음 도입된 부문으로, 판소리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공식 경연 무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전통예술의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판소리 최고 권위 부문인 명창부 대상 시상금이 5천만 원으로 상향되면서 전국 소리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연 수준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판소리 및 고수 경연대회를 중심으로 국내 정상급 국악인의 공연이 펼쳐지며, 판소리 다섯 바탕 체험과 전통문화 만들기 체험 등을 통해 관람객 참여

형 콘텐츠를 확대했다.

참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판소리와 고수 전 부문에 걸쳐 전국 및 해외 참가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 참가 방법 및 세부 일정은 보성문화원 ☎(061) 850-5892 / 852-2629)에 문의하거나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누리집(<http://www.boseong.go.kr/tour/festivity/sopyonje>)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부 신설과 명창부 시상금 확대를 통해 서편제보성소리축제가 세계 속 전통예술 축제로 성장하는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을 통해 관람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제28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열리는 기간인 5월 1일부터 5일까지 보성군 일원에서 ▲제49회 보성다향대축제, ▲보성군민의 날, ▲보성북차마라톤대회, ▲어린이날 행사, ▲일림산철쭉문화행사,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축제가 함께 개최된다.

보성/김윤기 기자



나주문화재단, 데이터베이스 구축 나서

오는 5월 31일까지 집중 모집... 아카이브, 홍보 지원 연계

나주문화재단(대표이사 김찬동, 이하 재단)이 지역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활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예술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재단은 '2026 지역 예술인·예술단체 데이터베이스 등록·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예술인 플랫폼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단의 문화예술 지원사업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대상은 나주에서 거주하거나 나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전문 예술인과 예술단체로 활동 홍보물, 결과물, 활동사진, 단체 고유번호증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재단 누리집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자료는 담당 부서 심의를 거쳐 보완 절차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며 구축된 자료는 향후 문화예술 지원사업과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재단은 등록된 예술인과 단체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인터뷰와 아카이브 제작을 지원하고 누리집을 통해 외부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



갈 계획이다. 예술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연중 상시 모집으로 운영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는 집중 모집 기간을 통해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찬동 대표이사는 "이번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재단이 지역 예술인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 예술인과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영암군이 군민과 방문객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기 인문학 강연을 연다.

영암군은 오는 4월 9일 '말자할매 김영희'의 인생참견쇼-그게 고민이여?'를 개최해 일상 속 고민을 유쾌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인문학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봄철 지역 축제 기간과 맞물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강연에는 '소통왕 말자할매' 캐릭터로 사랑받고 있는 코미디언 김영희가 무대에 오른다. 특유의 입담과 현실적인 이야기로 관객과 호흡하며 웃음 속에서 삶을 돌아

영암군 정기 인문학 강연 '말자할매 인생참견쇼' 개최

공감과 유쾌함 담은 인문학 무대, 영암에서 개최

보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이론 중심의 강의에서 벗어나 경험과 공감의 언어로 풀어내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는 자리로 꾸며진다.

강연은 4월 9일(목) 오후 2시 왕인박사유적지 주무대에서 진행된다. 참여는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은 4월 2일까지 홍보물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좌석은 선착순 400명까지 제공되며, 이후 인원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도 마련된 스탠딩 공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강연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 인문도시팀 ☎(061-470-225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최복용 인재육성체육과장은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인문학을 접하고 서로의 삶을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연계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광주문학관, 문학상주작가 23일까지 공모

5월부터 7개월간 창작 활동·문학 프로그램 운영

광주광역시 광주문학관이 문학 창작 활동과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문학상주작가' 1명을 오는 23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은 작가가 문학관·도서관 등 문학시설에 일정 기간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 문학 창작 환경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의 문학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평의회가 주관하는 '2026년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 공모에 광주문학관이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지원 자격은 등단했거나 개인 창작집을 1권 이상 발간한 문인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이 가능한 작가다.

지원을 희망하는 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온라인 매칭 박람회(<https://munjang.or.kr/munhakurator>)에 접속

해 광주문학관을 선택한 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광주문학관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1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상주작가는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 동안 광주문학관에 상주하며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 대상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전순희 문화유산지원과장은 "문학상주작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문학 창작 환경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문학을 일상에서 더욱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문학관은 상주작가 프로그램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을 추후 광주문학관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김명수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광양중마도서관, 시민 독서서비스 '맞춤형 책 꾸러미' 운영

초등 교과 연계·중등 진로·역사 추천도서 제공으로 독서문화 활성화

학생 대상 '책뭉치'는 도서관 1층 어린이실에서, 중학생 대상 '독서중'과 성인 대상 '책바구니'는 2층 종합자료실에서 각각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대상 도서 구성을 기존 교과 연계·필독서 중심에서 진로 추천도서 중심으로 개편해, 진로 탐색과 자

기 이해에 도움이 되는 도서 5권을 한 꾸러미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역사 추천도서 등 주제별 도서를 포함한 총 40꾸러미를 상시 비치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도서관을 방문해 목록을 확인한 뒤 1개월간 대출할 수 있다. 영유아를 위한 '그림책 수레'도 함께 운

영한다. 추천 그림책 30권을 한 번에 대출해 가정에서 꾸준히 읽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최근 3개월간 연체 이력이 없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종이책뿐만 아니라 전자책 단말기 대여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서관은 현재 소장형 전자책 약 1만 9천 권과 구독형 전자책 약 18만 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전자책 단말기를 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에서 최대 4시간까지 대여할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사업

보다 나은 농어촌

농

지가 있다면

지

금 바로 가입해야 할

어

금이 있습니다

기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